참된 평화는 우리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하신지요?

따스한 봄기운과 생명의 숨결이 온 누리에 가득한 오늘,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께 깊이 감사 올리며 봉축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평화보다는 불안이, 화합보다는 대립이, 이해보다는 오해가 더욱 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부처님의 탄생과 함께 울려 퍼진 이 외침은 오만과 독선이 아닌 모든 생명이 존귀함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화롭고 조화로운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합하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부처님의 길입니다.

참된 평화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선명상 수행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수행의 힘으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기쁨을 나누며 공존과 화합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이 땅 모든 생명 위에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동교화로 새 시대

능원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불기 2569년 전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생명은 고유한 존엄을 가지며 그 자체로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존엄하고 존귀한 삶을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자비로 채워서 세상에 평안이 깃들게 하고 이웃과 사회, 국가와 인류가 다 함께 행복하기를 서원합시다.

우리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화목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국내의 정치와 경제상황,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은 물론 관세 등 외환위기를 비롯해 전쟁, 질병, 기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여전합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2천500년 전 뭇 생명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육바라밀과 팔정도 등의 다양한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길은 지금, 여기서 바로 멈추고, 내려놓고, 비우는데 있습니다. 고통을 부르는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탐냄을 멈추고, 다툼을 일으키는 화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밝히고, 베풀고, 화합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부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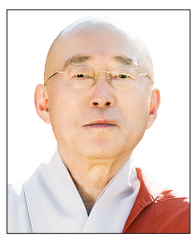
진언행자 여러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을 열 듯이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족과 이웃을 제도하고 주변을 정화해 국가와 사회가 더욱 평안하기를 서원합시다. 자신을 성찰하고 참회하면서 부처님의 진실법을 세워 정진합시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합시다.

육바라밀이 참된 실천입니다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放下着 着得去 (방하착 착득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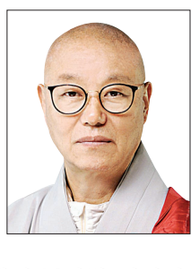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본래 공(空)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고통과 번뇌는 결국 집착에서 비롯되며, 이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지혜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낡고 해진 옷을 버려야 새로운 멋진 옷이 생기듯이, 마음 또한 욕심과 집착을 비울 때 평화와 여유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비워진 마음의 공간에 우리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 육바라밀이 바로 비워진 공간을 아름답게 채우는 참된 실천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초파일에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어두운 집착과 욕심을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지혜와 자비로 채우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늘 밝힌 연등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환히 밝아지고, 서로가 서로의 인연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인연의 불빛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자비 등불 켭시다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부처님께서는 고통 받는 우리를 제도하시고자 오늘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혼란한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혀 모든 중생을 섭수하시고자 출현하셨습니다. 따라서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나누어 서로를 위하고 돕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가장 잘 받드는 일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곳에는 갈등과 시비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할 때 정답게 어울려 화목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지혜로움이 있는 곳에서는 나만 생각하고 고집하는 이기심과 욕심, 아상, 아집이 없습니다. 성냄과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너와 내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공영의 세상이 널리 펼쳐집니다.

우리는 요즘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이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의지를 갖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모든 고통은 자성을 깨달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불법홍포의 사명을 다하여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아갈 것입니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자비행에 동참할 것이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올바른 민심과 공동체 정신이 존중되기를 서원하며 국민화합과 조화로운 사회 만들기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어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반목은 신뢰로, 분쟁은 화쟁으로 돌리어 다 같이 자비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전국의 국민과 불자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하루속히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 같이 고통 없는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것이 부처님오신 참뜻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우리 모두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켭시다.

법향기 온누리에 가득하길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상을 깨우치시고 만 중생을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무명이 깊고 깊어 청정한 본마음을 잃어버린 채 욕심내고, 성내고, 화를 내며 무명의 업장을 키워가니 중생계는 어느 하루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과 같이 우리 모두 청정한 본마음을 회복하고 부처님 오심을 예배 찬탄하며 연등에 불을 밝히고각자의 마음을 밝히는 수행정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룸비니동산에 울려 퍼진 그 법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갑시다.

부처님 마음으로 행복한 삶 누리길

록경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세상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합니다.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든 가정과 도량마다 두루 평안하시고 화평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적지 않은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결정이 있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명 피해와 함께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화합을 지향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주변의 상실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보시, 한 마디의 위로,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곧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울러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자성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하나씩 올립시다. 각자의 마음속에 부처를 일깨우고, 수행과 발원이 사회에 희망이 되어 이 세상이 자비가 넘치는 평화로운 불국정토가 되도록 서원하고 정진합시다.

오늘은 지혜와 행복의 세상을 열어주신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부처의 마음으로 살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합시다.

